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ume 21 Number 2  
December 1992**

---

**Supplement**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1~1992

**Seoul National University**



#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1~1992

## 저술소개, 1991~1992

**편집자 주:** 본 호에 실린 저술소개는 1991년 7월부터 1992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 대학 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 관련 학회 및 민간 연구소의 논문집 중에서 한국의 인구 및 발전문제에 관한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s note:**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91 through June 1992 in social science journals published by various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 1. 인구성장 및 정책

2361. 金玉岩,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국문), 사회과학논총 3,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2, pp. 31~50.

Kim, Ok-Am, “Changes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Aging”(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3,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1991. 12, pp. 31~50.

인구는 소비 및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은 곧 경제변동을 뜻한다. 반면 경제변동은 장기적으로 인구변동을 초래한다. 인적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던 한국경제에 있어서 향후 진전될 인구고령화와 인구요인의 변동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다. 현재 한국인구는 아직 노년기에는 들어가지 않아 활력을 잃지 않

았고, 인구증가율이 최근 1%수준에 도달했으나 선진국평균치인 0.57%보다는 높다. 그러나 2020년에 정지인구 또는 인구의 감소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상할 때 한국사회도 성장감속에 대한 대비와 복지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2362. 金漢坤, “한국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동추이와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여름, pp. 33~51.

Kim, Han-Gon, “Changes and Determinants of Age-Specific Marital Childlessness Patterns among Korean Women: 1966~1985”(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33~51.

1966년에서 1985년까지 5년 간격으로

한국의 무자녀경향에 대한 변동 추이를 밝혀봄과 동시에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무자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령군별 무자녀율 및 일반기혼무자녀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밝히기 위하여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회경제발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여성의 지위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수를 도입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15~19, 20~24, 25~29세 연령군의 자발적 무자녀율은 1966년 이래 1985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40대 연령군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사회경제발전과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의해 일시적이며 자발적인 무자녀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40대 연령층의 경우는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자녀를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비자발적인 무자녀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반 기혼 여성 무자녀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20대 젊은 연령층의 일시적이며 자발적인 무자녀율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거의 같은 기간동안에 40대 연령층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감소하여 서로 상쇄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2363. 노공균, 조소영, 신동숙, 이태훈, “한국노령인구의 사회 경제적 상황의 결정요인”(영문 및 국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14-2, 한국인구학회, 1991. 12, pp. 45~70.

Ro, Kong-Kyun, So-Young Cho, Dong-Sook Shin, and Tae-Hoon Lee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nd Emo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91. 12, pp.45~70.

Social isolation, poverty, unemployment, physical frailty, the loss of self-esteem are the problems prevailing in the elderly. This study provides some insights into what factors influence or determine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It turns out that life satisfaction, general health, functional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2364. Nicholas Eberstadt,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의 변화추이”(영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14-2, 한국인구학회, 1991. 12, pp.18~44.

Nicholas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91. 12, pp.18~44.

Thanks to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some details about demographic and social trend within North Korea were available. Like many aspects of population change, the prospective trends in working-age population growth have economic implication. It is typically at younger ages that per-

sons absorb the education and develop the attitudes that affect productivity in later life. However, lower fertility rates make for lower replacement rates within the working-age population. The graying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may be expected to make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omewhat more difficult.

2365. 朴在興,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적 관점을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여름, pp. 1~19.

Park, Jae-Heung, “Problems of the Aged in Korea: An Exchange Perspective”(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 1~19.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사회적 지위 격하, 퇴직과 경제 사정의 악화, 역할상실과 고독감, 건강악화와 노인부양의 문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교환론적 시각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건 제도적 수준에서건 노후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노후를 맞게 되고, 퇴직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여 심적 부담감을 갖는 것이 오늘날 한국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결국, 노인이 소유한 자원을 재활성화시키는 한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노인복지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366. 박주문, 김희진, “한국의 가구주별 변동양상과 전망”(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보건사회논집 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 pp.100~125.

Park, Ju-Moon, and Hee-Jin Kim, “Changing Pattern and Prospect of Headship Rates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991. 7, pp.100~125.

1975~1985년 간의 가구주율 변동을 기초로 2010년까지의 가구주율을 추계하고 변동양상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전체 가구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가구주율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부(郡部)지역 가구주율은 연령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가구주율에서는 아직 남녀간 차이는 크지만 여성 가구주율의 증가속도가 빠른 추세이고,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경우 30대 이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2367. 尹鐘周, “우리나라 노인부양구조의 변화”(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보건사회논집 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 pp. 58~81.

Yoon, Jong-Joo, “Changes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Aged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991. 7, pp.58~81.

노년인구의 양적 구조적 변화의 추이 및 전망, 노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의 욕구

를 살피고 현재의 노인부양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적인 노인의 가족내 부양구조 와해를 지적하고, 이를 인구학적 원인, 경제 사회 문화적 원인, 정책적 원인 등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새로운 노인 부양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368. 尹鐘周, “노인단독가구의 분리에 작용하는 요인”(영문), 한국인구학회지 14-2, 한국인구학회, 1991. 12, pp. 71~77.

Yoon, Jong-Joo,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paration of the Elderly from the Integrated Multi-Generation Family in Korea”(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91. 12, pp. 71~7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paration of the elderly from the multi-generation famil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1980s results from ① continuous trend of small family size attitude, accompanying fertility decline to under the replacement level, ② nucleation of the family with the acceptance of the urban way of life, ③ a fundamental breakdown of the traditional support system for the aged, ④ preference among the elderly themselves for an independent household, and ⑤ exodus from traditionalism prevailing among the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2369. 李佳玉, 李元淑, “노인욕구 지표개발과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영문 및 국문 영문요약), 보건사회논집 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 pp. 25~41.

Rhee, Ka-Oak, and Won-Sook Lee, “Social Indicators on Aging and Caring for the Aged”(in English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Journal and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991. 7, pp. 25~41.

The identification of needs of the aged is an essential and fundamental process in establishing social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indicators relevant to the needs of the aged and analyzing social care for the aged in Korea. The needs indicator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① demographic and fiscal/budgetary category, ② economic needs, ③ health care needs, and ④ psycholocial needs.

The research shows that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poor are desirable to meet minimum living cost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intermediate facilities such as short stay and day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and to develop home help servic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family of caring for the frail elderly.

2370. 李時伯, 尹鳳子, “한국인의 지역 및 월별 사망을 수준 변동에 관한 연구”(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보건사회논집 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

pp. 82~99.

Lee, Sea-Baick, and Bong-Ja Yoon, "Regional and Monthly Variations in Mortality"(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991. 7, pp. 82~99.

1975~1988년 사이의 사망신고자료에 대한 연도 및 월사망을 변동과 지역별 사망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1975년 이후 사망율은 계속 하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등 지역에 따른 사망률 수준은 큰 차이가 나타난다. 사망의 시기는 출생의 시기와는 달리 순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 또는 계절별 사망의 빈도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71. Chang, Edward T., "미국내 소수민족의 융화: 한·흑 갈등사례" (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 37~56.

Chang, Edward T., "Building Minority Coalitions: A Case Study of Korean and African Americans"(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 37~56.

Since the early 1980s, Korean-African American conflicts have emerged as one of most explosive issues of urban

America.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spair, many African American have perceived Korean merchants as "aliens" who have "taken over" their community. In order to alleviate and prevent tension between the two communities, Los Angeles Coun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convened the meeting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nd formed the Black Korean Alliance(BKA) in 1986. The primary purpose of the BKA was to disseminate positive information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Despite attempts, tension escalated in 1991 when two African American customers were shot and killed by a Korean American merchant in two separate incidents.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learn from the failures of BKA.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relations is like a "key of dynamite" ready to explode. The real challenge for Korean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is how to forge coalition by maximizing commonalities while minimizing differences before it is too late.

2372. 張蓮集, "미래 한국 가족양태의 추이와 대안" (국문), 인문사회과학논총 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1. 12, pp. 143~159.

Chang, Yeon-Jip,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the Transitional Modes of Future Korea Family Patterns" (in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143~159.

조선시대의 가족양태와 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가족양태를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문제 중심으로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본다. 현재 서구의 가족양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우리의 미래 가족양태를 예측한다. 아울러 미래의 한국가족양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학적 변화의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점의 하나로서, 가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및 실생활에 적용할 구조적 측면에서 미래에 가장 적합한 한국의 가족유형을 제시한다.

## 2. 인구이동 및 도시화

2373. 權泰煥,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39~56.

Kwon, Tai-Hwan,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Rural Community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39~56.

우리 농촌사회의 발전문제를 1960년 이후의 공업화 과정에서 가장 심한 변화를 경험한, 그리고 농촌의 주체적 발전에 기초가 되는 가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망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학적 위기, 농촌가족의 불안정화, 커뮤니티의 정체와 해체현상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농촌 커뮤니티를 자족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세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발전개념을 재검토할 것과 새로운 농촌상의 정립을 전제로 한 발전방향의 재

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2374. 金益基, “한국의 이농현상과 농촌의 구조적 빈곤”(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9~38.

Kim, Ik-Ki, “Rural-to-Urban Migration Patterns and Structural Poverty of Rural Areas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9~38.

1960년대 이래 일어나게 된 심각한 이농현상에 착안하여, 대량이농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이농의 원인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구조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농촌의 실상을 살펴본다. 특히 농촌의 실상 중에서 농촌빈곤과 관련된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공업화를 통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지향한 경제개발 정책은 상대적인 농촌 피해를 몰고왔고 급기야는 강대국의 개방공세로 인한 농촌 붕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

2375. 金憲珉, “도시의 인구이동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14-2, 한국인구학회, 1991. 12, pp.1~17.

Kim, Hun-Min, “An Analysis of Urban Migr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91. 12, pp.1~17.



적절한 지역간 인구분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의 인구억제 정책과 소규모 중소도시의 인구유입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정책이 인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의 재정구조와 인구유출입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성에 있어 일반행정 업무비용과 같은 경상지출보다는 도시의 기반구조와 같은 도시 서비스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 문제가 절실한 도시에서는 재정 자립도의 향상이나 지방세 감세 등의 유인책보다는 도시의 지역개발을 강조한 재정지출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376. 朴京愛, “농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생태학적 고찰”(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여름, pp. 21~32.

Park, Kyung-Ae, “Ecological Approach to Rural Migration”(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21~32.

인구이동에 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은 생태학적 복합체(또는 POET) 모델과 생계조직 모델로 나눌 수 있고, 생태학적 복합체 모델은 다시 생계조직 모델과 환경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모델의 생계조직 모델과 환경 모델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서의 인구이동은 생계조직과 환경의 직접적인 변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생계조직을 통한 환경의 간접적인 영향 및 환경과 생계조직을 통한 기술의 간접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 모델을 검증

하기 위해 인구, 조직, 환경 및 기술이라는 생태학적 요소에 대한 조작화가 순인구이동을, 직업분포도, 상수도보급율, 백명당 자동차 등록수로 각각 이루어졌다. 모델에 따라 각 변수들의 상관성을 연결짓는 5개의 가설이 도출되었고, 호남의 군 지역을 분석단위로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서의 효과 분류 작업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시된 모델을 지지하였음은 물론 생태학적 복합체 모델의 강한 설명력을 입증해주었다.

2377. 薛東勳, “한국의 이농과 도시노동시장의 변화, 1960~1990”(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 145~190.

Seol, Dong-Hoon, “The Rural-to-Urban Migration and the Change of Urban Labor Market in Korea, 1960~1990”(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145~190.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한국의 이농과 도시노동시장의 변화를 ① 이농의 시기와 이농 추이의 특성, ② 이농자들의 성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의 특성, ③ 이출된 농촌노동력이 도시노동시장에 편입되는 형태와 도시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결과 농촌노동력 공급구조가 전환되는 1965~70년과 도시노동력 공급구조가 전환되는 1975~80년을 한국의 노동력 공급구조가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파악한다. 이농이 도시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도시의 노동력 자체 재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378. 安秉根, “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국문), 경상논집 20-1,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3, pp.89~115.

Ahn, Byoung-Keun, “The Estimation of Minimum Living Cost of Urban Sector in Korea”(in Korean),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0-1, Economics and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92. 3, pp.89~115.

기존연구에서의 최저생계비 산출모형은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라운트리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시부문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2379. 尹福子, 이연정,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성향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생활과학논집 6,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2. 5, pp.129~142.

Yoon, Bok-Cha, and Yeon-Jeong Lee, “An Analysis of the Propensity of Low-income Households to Move: The City of Seoul”(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Yonsei Journal of Euthenics* 6,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2. 5, pp.129~142.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많은 주거결합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이동 성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이동의 동기는 경제적인 차원의 주거비 조절을 위한 것이 많다. 둘째,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생활주기 단계

는 주거이동 성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셋째,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할 때 가구 특성중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원수에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주택유형별로 본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이동 성향은,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사할 확률은 적어지며 전체 주택의 총방수가 많고 주택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2380. 李仁秀, 李時伯, “도시지역 주민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영문 및 국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14-2, 한국인구학회, 1991. 12, pp.78~87.

Lee, In-Soo, and Sea-Baick Lee, “Longitudinal Perspectives of Residential Mobility in Urban A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91. 12, pp.78~87.

Residential mobility is a crucial mechanism that a family adjust their life to a new style including the change of their household compo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tterns of residential mobility in urban Korea. One of major finding is that the young couple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are most likely to change their places toward more spacious and private dwelling units. Another finding is that couples formed since 1960 changed their residence more frequently than previously formed couples at the first five-year period of their life cycle.

2381. 曹永國, “농촌지역의 변화와 농업경

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영천군의 두 촌락을 사례로”(국문 및 영문요약), 지리학논총 1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1. 8, pp.21~39.

Cho, Young-Guk, “A Study on the Changes of Rural Areas and Variations of Farm Management by Types of Farm Household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eography* 18,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8, pp.21~39.

농가간 농업경영 분화의 성격 고찰을 위해 농가를 가구주 생애주기와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농가유형간의 농업생산활동방식이 차이를 보이는지와 그 차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촌락의 특성이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환경 요인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특성이 개별농가의 농업경영 및 농가간 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역간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2382. 朱京植, “도시내부의 인구이동 패턴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국토계획 27-2,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2. 5, pp.127~140.

Joo, Kyung-Sik, “A Study on the Intraurban Migration Pattern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27-2, Korea Planner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127~140.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여 대도시 내부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고찰한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와 전출신고서를 이용하여 60여개 행정동 사이의 O-D Data Matrix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

로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를 한다.

2383. 車鍾千,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국문 및 국문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155~175.

Cha, Jong-Chun, “An Analysis of Korean Male Intergenerational Mobility Using Association Models”(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155~175.

최근 수집된 전국규모의 불평등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남자들의 세대간 사회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호연관모형들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부친의 직업범주가 높을수록 자식이 인접한 두 직업범주 사이에서 보다 높은 범주에 소속될 확률이 증가한다. 둘째, 부친의 직업범주가 높을수록 육체노동자층보다 정신근로자층에 속할 확률이 농민보다 높다. 셋째, 부친이 육체노동자거나 농민일 경우에는 정신근로자층에 소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사회이동의 양상은 또한 육체노동자층과 정신근로자층 사이의 간격 점차 좁혀지는 방향으로 직업구조가 변화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2384. 洪斗承, “서울 중산층의 공간적 분화 연구, 1975~1985”(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73~83.

Hong, Doo-Seung,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iddle Classes in Seoul, 1975~1985”(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

*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73~83.

This paper examines the degree of inter-class residential segregation in urban Korea by looking at the middle class concentration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1975~1985. Discussion is focused on how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the middle class households changed during this period. Using the 2 percent sample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iddle class is explored. Recognizing that sharp residential segregation by social class is a more recent phenomenon, this paper implies that segregation deepens the gap between housing classes and the gap in turn may facilitate the segregation of residence.

### 3. 가족

2385. 김용미,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성격 및 가정환경의 특성 연구: 법대 및 의대 재학생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30-1, 대한가정학회, 1992. 3, pp.257~282.

Kim, Yong-Mi, "Individual and Family Background Predictors of Non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among Korean College Wom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1,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3, pp.257~282.

취업여성들 중 남성주도적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밝힘으로써 전통적으로 여성주도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남성주도형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으로는 의대생, 법대생 집단을, 여성주도형 직업에 종사할 여성으로는 유아교육, 가정교육,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범대생과 간호대학생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삼는다. 각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젊은 여성의 직업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가정환경의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2386. 金在恩, "가족과 교육"(국문 및 영문요약), 가족학논집 3, 한국가족학회, 1991. 11, pp.133~142.

Kim, Jae-Un, "Family and Educa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1, pp.133~142.

교육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교육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두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가족 이기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주입되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치유책을 소개하고 있다.

2387. 金漢坤, Dudley L. Poston, Jr., "한국여성의 지위와 출산력: 1966~1985"(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177~198.

Kim, Han-Gon, and Dudley L. Po-

ston, Jr. "Women's Status and Fertility in Korea: 1966~1985"(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177~198.

지난 30년에 걸쳐 괄목할만한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한 한국의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규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지위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에는 사회경제발전, 여성의 지위, 불임시술 등이 직접적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한국이 경험한 괄목할 만한 출산율의 감소에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했음도 밝혀졌다.

2388. 金興柱,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 85~143.

Kim, Heung-Joo, "Labor Forces and Family in Korean Rural Communities" (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85~143.

한국의 파행적인 자본축적 과정에서 농민의 이농 탈농으로 인한 농업 노동의 내용 변화가 농촌 가족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실태와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노동력 구성상의 변화로서 노령화 여성화 현황을, 농업 노동조건의 변화로서 노동시간 노동

강도 증가현상을 기본적인 변수로서 사용한다.

2389. 閔丙甲, "한국계 미국인인 주부들의 과다노동" (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23~36.

Min, Pyong-Gap, "Korean Immigrant Wives' Overwork"(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23~36.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based on interviews with 298 Korean married women in New York City, the extent to which Korean immigrant wives overwork. Its secondary objective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ifferentials in Korean immigrant wives' share of housework. A large majority of Korean immigrant wives in New York City are found to take the economic rol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 working wives are involved in excessively long hours of work, comparable to their husbands. Moreover, Korean immigrant working wives are responsible for most of housework. As a result, they spend some twelve more hours per week than working husbands. As expected, the amount of time Korean immigrant wives spend for paid work and the number of their cohabiting extra adult members significantly reduce their share of housework. Years

of education Korean immigrant wives received have a moderate,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proportion of housework. However, neither their length of residence in the U. S. nor gender role attitud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hare of housework.

2390. 朴美海, “한국사회의 교육계층으로 본 배우자 선택”(국문 및 영문요약), 가족학논집 3, 한국가족학회, 1991. 11, pp. 21~29.

Park, Mee-Hae,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3,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1, pp.21~29.

교육수준이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개인별로 조사된 1975년과 1980년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부부에 관한 자료로 재배치하고, 교육수준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네 범주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그 결과 한국 교육계층혼의 경우 동질혼이 주류임을 밝혔다.

2391. 朴淑子, “가족과 직업”(국문 및 영문요약), 가족학논집 3, 한국가족학회, 1991. 11, pp.143~160.

Park, Sook-Ja, “Family and Occupa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3,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1, pp.143~160.

‘비동거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

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적인 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문헌조사와 심층사례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는 교육시설의 분산육성 정책이나 기업체의 지방분산 정책을,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타아소의 확대 및 다양화, 국민학교 교육운영방침의 변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2392. 卞化順,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과 후쿠오카를 중심으로”(국문), 여성연구 10-2, 한국여성개발원, 1992 여름, pp. 85~134.

Byun, Wha-So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Consciousness between Korea and Japan”(in Korean), *The Women’s Study* 10-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ummer 1992, pp.85~134.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제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가를 고찰한다.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족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되고 또한 해체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가족은 정서적 만족이라는 가족기능을 더욱 요구하게 되며, 또한 결속력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각 사회의 산업화 수준과 전통적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가치의식과 가족규범에 대한 인지, 가족의 결속과 만족, 가족정체성, 가족규범, 가내 성별분업, 부모역할 그리고 가족정책 등 가족의 제반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2393. 서선희, “가족은 유용한 분석단위인가?”(국문 및 영문요약), 가족학논집 3,

한국가족학회, 1991. 11, pp.55~68.

Suh, Sun-Hee, "Is the Family a Useful Unit of Analysi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3,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1, pp.55~68.

가족사회학의 주변화 경향은 가족을 사회 안정의 기본단위로만 연구하는 구조기능론적 방법론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법을 보완하여 가족을 형태와 내용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다양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의 측면, 즉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이 개별 가족성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 특성을 만들어 낸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394. 宋建鏞, 金英任, 朴賢愛, "노인과 영유아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보건사회논집 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 pp.1~12.

Song, Kun-Yong, Young-Im Kim, and Hyeoun-Ae Park,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Physician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Toddler"(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991. 7, pp.1~12.

노인을 영유아와 비교할 때, 의료요구 수준은 높은데 반해 의료이용수준이 낮은 이유를 노인과 영유아의 의료이용에 대한 제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동일 가구내 거주하는 노인과 영유아 간의 의

료이용 격차에 미친 중요변수의 효과(MCA)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영유아의 의료이용수준은 의료요구와 비례하여 높아지지만 노인의 의료이용수준은 의료요구와 비례하지 않고, 가족수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족내 노인에 관한 의료이용상의 관심은 영유아보다 훨씬 낮으며 이것이 이들간 의료이용 격차를 크게 하고 있다.

2395. 玉先花, 조은숙,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관계" (국문 및 영문요약), 생활과학연구 17,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992. 5, pp.15~25.

Ok, Sun-Wha, and Eun-Sook Cho, "The Life of Urban Poor Families Focusing on the Marital Relationship", *Research Reports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17,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5, pp.15~25.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생활에서 가족관계상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가족의 응집성 및 가족주의 가치관 등을 조사 분석한다. 결혼생활의 실태를 구혼과정, 혼인상의 특성, 남편의 생활습관상의 문제 및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결혼생활에 미치는 변수를 인구학적 변수 및 구혼과정상의 변수와 연관시켜 살펴본다.

2396. 유가효, 박혜인, 조희금, 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Ⅱ)" (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30-1, 대한가정학회, 1992. 3, pp.

283~309.

Yoo, Ka-Hyo, Hye-In Park, Hee-Keum Cho, and Chung-Sun Park, "A Study on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and Policy Implications (II)"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1,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3, pp. 283~309.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실태를 대구지역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맡아온 여성노동력은 저연령 미혼여성의 단순반복적 미숙련노동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전형적 여성노동의 모습이 1980년대에 이르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취학을 증가에 따라 미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둔화되고 생산직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포착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잔존하고 있는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노동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의 일터와 가정의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기혼여성들이 어떤 생존전략을 가지고 이중노동의 부담을 감당해내는지 살펴본다.

2397. 이경자, "부녀지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여성연구 10-1, 한국여성개발원, 1992 봄, pp. 5~38.

Lee, Kyung-Ja, "A Study on the Improvement Guideline for the National Guideline Program for Women" (in Korean), *The Women's Study* 1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pring 1992, pp.

5~38.

부녀지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자 및 부녀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의 부녀지도사업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의식 및 생활여건의 변화,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 등에 대응하지 못한 채 1970년대 후반이래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획일적인 사업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부녀지도사업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녀지도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사업의 방향과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평가 및 포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한다.

2398. 李令子, "페미니스트 페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 199~215.

Lee, Young-Ja, "A Feminist Paradigm in Sociology" (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 199~215.

이 논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과 별도의 연구영역으로 취급하는 반면, 남성의 현실은 사회현실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인식론을 토대로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발전되어 온 현상을 사회학적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실증주의에 근거한 사회학의 물성주의에 내포된 성별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는 남성중심사회를 합



리화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적 사회학과 페미니스트 연구의 공통점과 수렴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페미니스트 연구가 보다 인간적이고 실천적인 사회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페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2399. 이정우, 이은주,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30-1, 대한가정학회, 1992. 3, pp.179~198.

Lee, Jung-Woo, and Eun-Ju Lee, "A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1,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3, pp.179~198.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경향과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본다. 가사노동의 영역을 의식주생활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일반적인 배경변인으로 연령, 학력, 결혼지속년수, 가족형태, 가족수, 가계소득, 주거형태, 가사조력자 유무, 여가활동 참여도의 조합을 상정한다. 가사노동 관련변인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가사수행능력,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정도의 조합을, 심리적 변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각각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2400. 李昌基, "한국 동족집단의 구성원리: 형성요인을 중심으로"(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 39~59.

Lee, Chang-Ki, "The Compositional Principle of Clans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39~59.

한국의 부계혈족 집단이 구성 조직화되는데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동족집단의 구성원리를 탐색한다. 한국의 가족은 장남이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일단 창설된 가족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부계, 직계, 장남의 원리에 의해 영속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한국 가족의 제도적 특징은 동족집단에까지 확대되어 가계 계승의식이 동족집단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 바탕이 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조상숭배의식, 동조의식, 배타적 족결합의식 등이 동족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심리적 결속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동족집단은 이러한 심리적 결속에 의하여 조직화된다.

2401. 정기환, "농촌 빈곤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부권 4개 농촌마을 사례"(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235~257.

Jung, Ki-Hwan, "A Case Study on the Poverty of Korean Rural Households"(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235~257.

농촌 지역의 마을 단위가구를 대상으로 빈곤가구를 판정하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특성 규명을 시도한다. 대전과 충남의 4

개 마을 139호의 사례를 이용, 빈곤층을 판정하여 목표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4. 직업과 노동력

2402. 강정인,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가 본 노사관계: 노동자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한국과 국제정치 8-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5, pp. 35~60.

Kang, Jeong-In, "Th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View of Manual Worker"(in Korean), *Korea and World Politics* 8-1,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eoul, Korea, 1992. 5, pp.35~60.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노사관계로 인해 끊임없이 비인간화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수기에 나타나고 있다. 수기에 나타난 노동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세계의 분석을 통해 노동자가 추구하는 세 가지 인간화의 모습과 세 가지 행위유형 그리고 각 항목 사이에 존재하는 선택적 연관성을 살펴본다.

2403. 金榮仁, "한국기업에 있어서 직위급 임금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문 및 국문요약), 경영학연구 21-1, 한국경영학회, 1991. 11, pp.177~207.

Kim, Young-In, "An Empirical Study on the Positioning Wage Structure in the Korean Firm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Manage-*

*ment Review* 21-1,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1. 11, pp.177~207.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제는 연공급이나 숙인급이 아니라, 위계적 노동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산물로서 직위급 내지 위계급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과정론 및 기업특성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이러한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117개 기업 5,213명의 노동자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임금체제는 연공급이 아니라 직위급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둘째, 규모 기술 전략 유형 노동자의 구성 조직분위기 지급능력에 따라 52개의 data set를 만들어 분석한 경우에도 개인간 총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전히 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위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위한 이론적 연구방법론적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404. 金章鎬, "한국의 여성 유희노동력: 존재양상과 창출 메카니즘" (국문 및 영문 요약), 아세아여성연구 30,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1. 12, pp. 117~156.

Kim, Jang-Ho, "The Underutilization of Women Labor Force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Asian Women* 30,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117~156.

우리나라 여성유희노동력의 존재양상을 제시하고 산업화과정에서 여성 유희노

동력이 재창출되는 메카니즘을 검토한다. 총가용 인력의 30 정도의 노동력이 유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최근 이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가부장적 사회관계에 따른 성역할분담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05. 金兌基, “생산성과 기업의 인력관리 제도: 대기업 생산직 사원의 경우”(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3, 한국노동연구원, 1992. 5, pp. 77~103.

Kim, Tai-Gi, “Productivity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the Case of Big Manufacturing Firm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3,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2. 5, pp.77~103.

대기업 생산직사원의 인력관리제도의 일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작업수행 동기부여 의사결정 메카니즘 차원으로 나누어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정부정책의 관계 속에서 규명한다. 인력관리제도의 실패는 생산직사원 노동조합간부 일선관리감독자 인사와 생산담당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 생산직사원의 인력관리제도는 숙련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작업수행 메카니즘과 동기부여 메카니즘이 개선되어야 하며 작업단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업조직과 관리감독의 개선을 요한다. 그리고 인력관리제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이 점차 하부로 이양되어야 한다.

2406. 金兌基, 朴基性, “노사관계전환에 대한 한 이론: 노사분규를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3, 한국

노동연구원, 1992. 5, pp.127~152.

Kim, Tai-Gi, and Ki-Seong Park, “A Theory on Transform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In Terms of Strike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3,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2. 5, pp.127~152.

주요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노사분규의 건수가 격감하면서 안정화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노사분규 발생 측면에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성향에서 협조적인 성향으로 전환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Reder와 Neumann이 제시한 노사관계의 protocol이론을 dynamic programming모형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이론이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시장의 개방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한국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 한국경제가 아직 성장국면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집중력을 높이는 정부의 산업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산업금융 지원 또한 그 취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407. 閔尙基, 崔景煥, “영세농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지원방향”(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181~210.

Min, Sang-Ki, and Kyung-Hwan Choi,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or Households in Rural Korea and Guideline for the Future Policy”(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181~210.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은 결과적으로 농업의 쇠퇴를 가져왔다. 특히 농업정책수행의 대상집단으로 부상하는 영세농은 자원의 보유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고 노령화되어 있어 가난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난은 개인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적 현상이다. 개인적 결합이 가난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가난의 구조화내지 세습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난의 발생원인을 예방 제거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세농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지 고찰한다. 특히 영세농을 위한 지원은 농업정책적 차원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영세농을 위한 선택적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408. 朴基永,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행정학보 25-2, 한국행정학회, 1991. 11, pp. 569~588.

Park, Key-Young, “Rationalization of Manpower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2,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1. 11, pp. 569~588.

인력정책의 이론체계를 종합 체계화하고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내용과 운용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력정책 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 국가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인력정책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거를 제공하려고 한다. 인력정책은 인력화정책 즉, 단순재로서의 미개발인력을 경제재로서의 개발인력으로 전환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계획 개발 배분 활용 유지라는 5대 과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목표 및 수단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정책 경제정책복지정책 및 인사정책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향후 한국사회가 인력정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인력정책이 국가발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정책의 목적기능과 종합성을 강화하고 정책관리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정책 운용기술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409. 朴英凡,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2, 한국노동연구원, 1991. 8, pp. 27~40.

Park, Young-Bum,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2,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1. 8, pp. 27~40.

남녀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남녀간 절대임금격차는 약간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순수 임금격차의 비중은 80년대 중반에 증가하다가 후반에 감소하였다. 이것은 6·29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노동시장의 외적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410. 朴濬植, “철강기업의 자동화기술과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포항제철의 경우를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여름, pp.53~70.

Park, Joon-Shik, "A Study on the Changes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Labor Processes in the Steel Corporation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53~70.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대기업인 포항제철에서 생산기술의 급속한 자동화가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중공업 대기업들 중에서 생산 과정의 자동화 수준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기업의 생산기술과 노동과정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들, 특히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에 있다. 조사의 결과 연속생산기술 체계하에서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도입은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에서 직접적인 육체노동의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축소시켰으며, 간접노동과 감시노동의 성격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에서 전통적인 육체노동이 부차화되고, 노동과정은 통제에 대한 통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11. 朴濬植, "대기업의 노무관리전략과 노동자 상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국문), *경제와 사회* 11,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1. 9, pp.215~240.

Park, Joon-Shik, "Strategy for the Labor Management System and the Changes of Working Condition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1,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9, pp.215~240.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87년의 전국적인 노동쟁의와 노조의 결성을 전후하여 노사관계 관리전략과 노동자들의 상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중공업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에서 노조의 결성을 전후하여 전개되어온 대기업의 관리전략과 노동자들의 상태변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괄해 보고, 이것이 87년 이후 한국의 대기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 갖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87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업의 관리전략은 기업 스스로의 힘에 의한 '직접적 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노동자들은 노조의 결성을 계기로 '조직지향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12. 魚秀鳳,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2, 한국노동연구원, 1991. 8, pp.41~88.

Uh, Soo-Bong, "Occupational Segregation and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2,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1. 8, pp.41~88.

우리나라 임금분포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구조의 하위계층에 많이 몰려 있다. 여성이 임금구조의 하위계층에 몰려 있는 이유는 동일직종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이 저임금 직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직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직종분리는 임금격차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시계열적

으로 살펴보면 성별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 격차는 점차 줄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의 하위임금계층 집중현상도 약해지고 있다. 한편 임금함수와 근속기간함수를 추정한 결과 1989년 현재 모든 조건이 같은 남녀 근로자 중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남성의 근속기간은 같은 조건의 여성의 근속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413. 魚秀鳳, 李泰憲, “노동조합의 임금 평등효과”(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3, 한국노동연구원, 1992. 5, pp. 27~76.

Uh, Soo-Bong, and Tae-Heon Lee, “Wage Dispersion Effects of Unions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3,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2. 5, pp.27~76.

6·29 전후로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 노동조합 조직부문인 조립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비조직부문에 비해 조직부문의 임금불평등도가 낮아 노동조합의 표준화 임금정책이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6·29 이후 조립금속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모두의 임금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노조가입 성향은 여성일수록, 미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20·30대의 근로자일수록 높으며 임금결정과정에서도 노조가입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조립금속 산업에서, 노조가입 성향이 높은 근로자는 조직부문에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반면 비조직부문에서는 노조가입 성

향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특성변수의 임금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2414. 李美那, “청소년의 교육과 직업성취”(국문), 한국청소년연구 2-1,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pp.135~151.

Lee, Mi-Na, “Education and Occupational Achievements for Youth”(in Korean), *The Korea Journal of Youth and Children* 2-1, Korea Institute for Youth and Children, Seoul, Korea, 1991, pp.135~151.

이중노동시장론의 틀 속에서 한국노동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받는 교육과 그들의 직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교육정책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또한 청소년의 직업성취도는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고 분석되어야 한다. 즉 정책수행자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의 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415. 李相德, “노동자 용역대여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3, 한국노동연구원, 1992. 5, pp.104~126.

Lee, Sang-Duck,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Temporary Worker Referral Service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3,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2. 5, pp.104 126.

노동자 용역대여는 대역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기 쉽고, 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가 확실치 않다. 또 사회보험법 산재

보험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등 노동보호법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 보호의 문제와 사회적 요청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자와 이행자가 분리되게 되어 양자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본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대주와 대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과 노동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하는 반면 차주와 대여근로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대여계약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계약내용 속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여근로자와 차주기업과의 관계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보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 용역대여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위법, 무효로 하거나 단행법을 통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16. 이용현, “농촌인력 개발 및 활용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행정학보 25-3, 한국행정학회, 1991. 12, pp.969~983.

Lee, Yong-Hurn,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Man Power in Rural Community”(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3,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1. 12, pp. 969~983.

농촌의 실상에 비추어 본 농촌인력의 현황과 과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농촌인력 개발과 활용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촌인력문제에

접근하는 기초에 있어서 인간주의적 인간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예 농업인력 육성 문제, 농촌인력의 고령화문제, 여성노동력의 활용문제 등에 대하여 실증적 대안을 정리하며,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농촌인력 개발과 활용의 방향을 구분하고 있다. 농촌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은 낮은 수준에 있고, 그들은 농촌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기들의 처지에 낙담하고 있다. 농촌문제의 해결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농촌실정에 대응하여 활로를 찾는 과정이다. 농촌인구 인력 개발과 활용의 문제는 농촌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2417. 李殷珍, “누가 무엇을 파는가?: 여성 서비스 노동시장의 정치경제학”(국문), 경제와 사회 14,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2 여름, pp.172~192.

Lee, Eun-Jin, “Who Sells What?: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o Woman’s Service Labor Market”(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4,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2, pp. 172~192.

여성이 서비스 산업 또는 서비스 직종에 몰려 고용되어 있는 실태를 밝히고,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며 여성이 어떠한 상태에서 고용에 응하게 되는가를 살펴본다. 서비스 산업 일반이 아닌, 여성에 적합한 서비스 산업은 파행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의 일에 대한 전통적인 제규정이 강화되면서 주로 여성다움이라는 상품 수요에 대한 반응이다. 이와 아울러 여성이 취업하는 개인 서비스시장은 대부

분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고용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418. 鄭然昂,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노동연구 3, 한국노동연구원, 1992. 5, pp.5~26.

Jeong, Yeon-Ang,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 Labor Review* 3,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1992. 5, pp.5~26.

Porter 등이 제시한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여 기업의 인사 조직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별로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동료들과의 상호관계, 내적 직무만족, 임원진에 대한 만족, 인관관계 교육, 임금수준 그리고 승진기회 등이 조직몰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19. 鄭在勳, “종업원의 직장반응행동과 노동조합 귀속의식”(국문), 노사관계연구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1991. 12, pp.145~178.

Chung, Jae-Ho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Responses to the Firm Satisfaction and Trade Union Commitments”(i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 The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145~178.

종업원들의 직장불만족과 그에 대한 반응행동, 그리고 노동조합 귀속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직장불만족 처리유형

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와 아울러 직장만족도와 불만처리 유형간의 상호관련성, 불만처리유형별 노동조합활동 참여도나 만족도, 조합 귀속의식의 차이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노동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장만족도가 클수록 충성이나 개별적 발언의 반응행동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직장만족도가 작을수록 이탈, 집단적 발언, 무관심의 반응행동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합 귀속의식에는 무관심형이 가장 낮고 개별적 발언형이 가장 높으며, 조합만족도에서는 이탈형이 가장 낮고 개별적 발언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참여도에서는 충성형이 가장 낮고 무관심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420. 趙亨濟,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 1980년대 국제분업의 변화를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 영문 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53~79.

Jo, Hyung-Je, “A Study on the Production System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53~79.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국제분업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자동차산업의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중 후반, 한 미 일 국제분업관계 속에서 국내완성차업체는 대량생산방식을 확립함으로써, 미국시장으로의 대규모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한국자동차산업은 대미수출이 감소하면서 ‘상대적 침체’의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국산차의 판



매가 감소하는 근본적 원인은 새로운 생산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비해 국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조차 지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2421. 崔奎燮, “농촌지역의 소득자원과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경북지역을 중심으로”(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57~83.

Choi, Kyu-Seop, “The Strategies for Subsidiary Income Resources Finding in Rural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57~83.

Tabulation 및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소득자원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농외소득요인과 농외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변수를 도출한다. 아울러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균형을 위하여 농외사업부문에 요구되는 소요자금을 추출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농외소득사업의 시행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사업은 농외소득원과 관련된 농공단지 사업, 농어가 임가공 사업, 특산단지 사업, 농수산물 가공 사업, 전통식품, 관광농업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직업훈련 조성사업 등이다.

2422. 洪斗承, “사회변동과 직업하사관의 위상”(국문 및 국문요약), *국방논집* 16, 한국국방연구원, 1991. 12, pp.80~100.

Hong, Doo-Seung, “Social Change and Social Status of Professional Sergeant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Defense*

*Analyses* 16,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eoul, Korea, 1991. 12, pp.80~100.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하사관들의 근무의욕 저하 및 이직을 증가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해군하사관을 중심으로 무엇이 이들 하사관들로 하여금 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스크오의 가설을 준거로 군조직의 성격변화를 살펴보면서 공공조직주의-직업주의의 2분법적 구분을 원용하여 직업주의적 요소를 군조직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필요성에 주목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군조직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직업하사관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검토한다. 또한 하사관 스스로가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 5. 경제발전

2423. 金東炫, 李承喆,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분석”(국문), *사회과학* 30-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95~126.

Kim, Dong-Hyun, and Seung-Chul Lee, “The Impact of EC Economic Unification on Korea”(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30-2,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91, pp.95~126.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의 결과 역내단일시장이 형성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공동체 비회원국의 대

비책으로는 유럽공동체와의 정보 및 의사 전달체제의 확립과 기술도입 및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현무역형태를 가공무역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424. 金練錫, “한국의 산업화 기술정책: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수입”(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85~98.

Kim, Youn-Suk, “Korea’s Technology Policy for Industrialization: Imported Technology for Economic Development”(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85~98.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from imported technology. The major feature of Korean technological policy was the fostering of indigenous technology through research centers establish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spicuous in its policy is the stress on a factor mix in which labor is the dominant element. Having realized a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Korea faces the problems in meeting competition from countries with more efficient industries as well as those with lower labor costs. Korea has to promote its own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lemented by imported technology.

2425. 金興柱, “현행 소작제의 성격에 관한 경험적 연구”(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131~179.

Kim, Heung-Joo, “The Tenant Farming System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131~179.

소작제의 성격규명이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논쟁의 단초이며 농민문제의 기본 주요모순 설정의 바탕이 되고, 합리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형화된 면접조사표를 이용한 가구주와의 면접과 인류학적 사례연구기법을 병용하여, 전형적인 반산반야촌인 전라북도 임실군의 S면 ○부락에 대한 사례조사를 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현행 소작제의 성격을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아닌 과도적 생산관계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성격규명, 농민문제의 기본 주요모순, 합리적인 농업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2426. 成素美, “시장개방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개발연구 13-4, 한국개발연구원, 1991 겨울, pp.91~116.

Seong, So-Mi,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13-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Winter 1991, pp.91~116.

개방화 및 고임금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경제의 주요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한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전개과정과 이러한 해외여건의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역할과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경영자산의 축적에, 정부는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라는 기본방침하에 자본 기술 인력 정보 등 생산요소의 질적 양적 확충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2427. 成素美, “산업기술개발의 실태와 정책적 시준점”(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개발연구 14-2, 한국개발연구원, 1992 여름, pp. 77~108.

Seong, So-Mi, “Korea’s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Oriented Technology Policy”(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14-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ummer 1992, pp.77~108.

산업기술력 향상의 주체인 국내기업들이 지식 및 기술축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체제에 대한 시나리오 및 정책적 시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의 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428. 宋大熙, 宋明熙, “국민주방식 공기

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개발연구 14-2, 한국개발연구원, 1992 여름, pp. 3~27.

Song, Dae-Hee, and Myung-Hee Song, “Economic Effects of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14-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ummer 1992, pp.3~27.

기왕에 이루어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현황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에 단계적으로 지속될 국민주방식 공기업 민영화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주방식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국민주를 통한 저소득층 재산형성의 한계성, 공기업 선정문제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2429. 辛聖一, “제조기업 본사와 생산자 서비스 산업의 연계: 수도권지역을 사례로”(국문 및 영문요약), 지리학논총 1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2. 2, pp. 49~68.

Shin, Seong-II, “Linkages between Corporate Headquarters and Producer Serv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eography* 19,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2, pp.49~68.

수도권지역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입지를 살펴보고 주요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여 그 연관성을 밝히고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수도권 지역에 입지한 기업본사와 생산자

서비스 산업은 서로의 활동이 집중하는데 영향을 끼치며, 매우 강한 공간적, 기능적 연계가 존재한다.

2430. 延河淸, 金炯元,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국문 및 국문 영문 요약), 한국개발연구 13-4, 한국개발연구원, 1991 겨울, pp.155~177.

Yeon, Ha-Cheong, and Hyong-Won Kim,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13-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Winter 1991, pp.155~177.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개방전망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물자교류 및 합작투자의 추진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남북한의 경제교류 협력의 추진은 교역단계, 자본 기술 협력단계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이후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431. 兪正鎬, “한국수출의 시장점유율 분석: 대미, 일, 여타OECD 수출실적을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개발연구 13-4, 한국개발연구원, 1991 겨울, pp. 3~30.

Yoo, Jung-Ho, “The Changes and the Determinants of Korea’s Market Share in U.S., Japan, and Other OECD Ex-

ports”(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13-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Winter 1991, pp.3~30.

한국의 대미, 일, OECD에 대한 상품 수출의 증가를 각 교역상대국이나 지역의 수입규모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한국의 점유율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해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자료를 사용한 회귀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점유율의 결정요인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영향의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입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432. 李章鎬, “독점적 우위가 기업의 해외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국문 및 국문 요약), 경영학연구 21-2, 한국경영학회, 1992. 5, pp.249~265.

Lee, Jang-Ho, “Monopolistic Advantages and Firm Performanc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Management Review* 21-2,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2. 5, pp.249~265.

최근 국내 경영환경의 변화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식별과 그 상대적 중요성의 검증을 시도한다. 투자대상국을 개도국으로 선정하는 것과 높은 R&D 집약도, 그리고 현지생산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433. 林鍾哲, “한국의 산업구조”(국문 및 국문요약), 경제논집 30-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9, pp.257~288.

Lim, Jong-Chu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Economic Journal* 30-3,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9, pp.257~288.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공업발전을 기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소비적산업을 중심으로 수입대체적 공업화가 진전되었고, 1960년대에는 자본재 및 중간수입에 의해 완제품 유입을 대체하는 유입대체적 공업화가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진전되고, 1974년 이후에는 1960년대까지 건설된 수입대체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는 한편 철강 및 석유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단기술산업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공업화진전에 따라 ‘1차산업>서비스산업>2차산업’이라는 후진적 산업구조는 1973년을 고비로 ‘1차산업<2차산업<서비스산업’이라는 선진적 구조로 탈바꿈하였고 1977년부터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앞서게 되었으며 호프만비율도 1953년에는 1:4.7이던 것이 1962년에는 1:3.0으로서 공업화 제2단계로, 다시 1974년에는 1:1.4로서 제3단계로 진입하는 구조변화를 하였다.

2434. 趙 淳, “한국경제의 발전전략”(국문 및 국문요약), 경제논집 30-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9, pp.231~255.

Cho, Soon,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Economic Journal* 30-3,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9, pp.231~255.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것은 전국민의 경제생활의 총체적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은 그 동안 펼쳐온 개발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발전전략은 본질상 전략의 이상, 질서의 정립, 경제운영 방향의 선택 및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개의 공화국을 거쳐오며 색다른 발전전략을 펼쳐왔으나 초지일관(압축)성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앞으로의 발전전략은 자생적 성장, 즉 경제성장이 외부적 충격이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내부에서 조성되는 여러가지 개선(기술의 자체생산, 유효경쟁의 창달, 기업능력의 향상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꾀해야 한다. 또한 인본주의적으로, 즉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435. 表鶴吉, “세계자본주의체제와 한국경제”(국문 및 국문요약), 경제논집 30-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9, pp.289~325.

Pyo, Hak-Kil, “The Korean Economy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 Critical Appraisal”(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Economic Journal* 30-3,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9, pp.289~325.

본고의 목적은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단행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성장단계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 중진자본주의론을 재해석한다. 중진자본주의론도 그 자체로서 한계점을 갖는 이론이지만 실증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유용한 사고의 틀과 가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진자본주의론에 근거하여 한국자본주의의 ① 세계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 정도 ② 종속성의 점감과 잔존성 ③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국과의 경합 ④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⑤ 저축률 생산성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실증적 평가를 바탕으로 추출되는 한국자본주의의 과제는 정치민주화의 달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일본이나 독일의 모형을 본받은 산업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2436. 洪正和,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관한 연구”(국문 및 국문요약), 경영학연구 21-1, 한국경영학회, 1991. 11, pp.1~37.

Hong, Jung-Hwa, “A Study on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n Enterprise”(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Management Review* 21-1,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1. 11, pp.1~37.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적절한 지출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도와 표본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 비용으로서 지출한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

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지출규모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면접 및 방문조사에 의하여 표본기업의 사회적 지출금액을 조사하였다. 표본기업의 규모별 사회적 지출을 볼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높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높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정치발전

2437. 金錫俊, “국가위기이론의 적실성과 제6공화국 국가위기의 경험적 분석”(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25-1, 1991 여름, pp.207~236.

Kim, Suk-Joon, “An Ambivalent State and Governing Crisis: The Sixth Republic of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5-1,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207~236.

한국이 당면해온 국가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들이 어떠한 것인지 자유주의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을 망라하여 그 적실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가위기를 나라, 상부구조, 지배블럭 지배연합, 사회관계의 응집, 판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 정부,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 등 7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이는 결국 분단위기-정당성위기-발전위기와 관련이 깊으며 이러한 위기의 해소는 민중

성의 강화에 의한 국가성격의 전반적 조정으로써만 가능하다.

2438. 南宮權, 裴炳龍, 李時遠, 김영기,

“의회 신뢰의 차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언론인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25-1, 1991 여름, pp.189~206.

Namkoong, Keun, Byong-Yong Bai, See-Won Lee, and Yeong-Ki Kim,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Legislative Support in Korea: Based on Attitude Survey of Local Journalist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5-1,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 189~206.

한국에서 의회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신뢰와 규범적 차원의 신뢰가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 종사자 213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통하여 이들 두 차원의 의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다. 규범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의회가 수행해 온 전반적인 기능적 성과에 대한 신뢰의 측정방향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의회 신뢰가 규범적 신뢰와 경험적 신뢰로 구분된다는 가설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2439. 盧東一, “북한 정치체제의 현황과 평가”(국문), 사회과학연구 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 23~46.

Ro, Dong-Il, “The Present Conditions of North Korea’s Political Regime and its Evaluation”(in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7,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91, pp.23~46.

북한 정치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한다.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북한 중앙정부의 3기관을 선정하여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의 내부조직 구조와 대표자 선출방식 및 권력기관 상호간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정치체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평가한다.

2440. 閔炳學, “한국 현대정치의 변동과정에 나타난 국가위기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과학연구 8-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 73 ~54.

Min, Byong-Hak, “The Crises of the State in Contemporary Korean Politics”(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8-2,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oo, Korea, 1991, pp.73~154.

한국현대정치가 경험한 변동의 실상을 각 공화국별로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한국정치의 과학화를 위한 규칙성, 반복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시간적인 동태분석과 함께 구조적인 위기의 정태분석을 행하고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처방을 모색한다. 한국민주정치는 “제도권의 장”이라는 논리하에서 보수주의 일변도의 정치패러다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만나는 민주정치체제의 정치과정이 형성되어 보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민주주의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2441. 박재욱, “시민사회,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운동의 새로운 전망”(국문), 사회과학연구 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pp. 45~70.

Park, Jae-Wook, “A New Perspective on Civil Society, Local Autonomy and Regional Movement”(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3,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2, pp.45~70.*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시민사회론과 지역운동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계급론적 지역운동론을 '새로운 사회운동론'의 입장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침체된 현재의 사회운동이 변화된 정치사회 현실에 부응하여 지역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한다. 결국 지역운동 속에서 진보적 지식인, 시민 등 중간층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증가와 중간층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의 탈물질주의적 이념 경향은 기존 계급적 변혁운동의 노선에 대한 수정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전망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2442. 박종수, "북한 및 공산권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국문), 사회과학연구 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pp.71~97.

Park, Jong-Soo, "An Analysis of Korean TV Programs concerning North Korea and Communist Countries"(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3,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2, pp.71~97.*

그동안 남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1983년부터 1990년까지 KBS, MBC 양대 방송사에서 방영된 북한 및 공산권 관련 기획보도, 기획교양, 토론 및 대담, 드라마 프로그램의 연도별 제작 추이를 제작편수, 편성특성, 관련 대상국가 그리고 주제의 가치관련성 등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지난 10년동안 KBS와 MBC의 북한 및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전환하는 지난 80년대의 국제환경 질서개편 과정에서 남북문제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2443. 申起鉉, "한국 지도층의 평등인식: 경험적 분석" (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25-1, 1991 여름, pp.273~300.

Shin, Ki-Hyun, "The Idea of Equality in Korean Leaders: An Empirical Analysi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5-1,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273~300.*

한국의 지도층 집단이 정치과정과 깊이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평등문제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지도층으로 추출된 대상은 노동조합 간부, 기업인, 국회의원, 공무원, 지식인, 대학 학생회 회장단, 사회단체 지도자, 언론인 등이다. 조사결과 이상적인 분배나 분배의 위기에 대한 지도층 집단의 견해 차이는 대립과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44. 李命英, "남북한의 정치역량 비교" (국문), 사회과학 30-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127~143.

Lee, Myong-Young, "Comparison of the Political Abil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30-2,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91, pp.127~143.

조국통일이라는 공통의 국가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어느 쪽이 보다 더 우세한 정치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결론은 남한이 우월한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은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에의 길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한의 정치역량 발휘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남한이 민중의 마음을 북한의 심리전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 지하당의 존재에 대한 무감각, 북한에 대한 무지, 그리고 북한과의 비밀교섭 등을 들 수 있다.

2445. 鄭大和, “한반도주변 국제질서의 재편과 남북한 관계의 구조”(국문), 한국과 국제정치 7-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2, pp.125~154.

Jeong, Dae-Hwa, “The Restructur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in Korean), *Korea and World Politics* 7-2,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125~154.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남북한 관계의 구조변화와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반도 통일문제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한반도주변 국제정세 남북한관계 남북한의 국내정세를 통일을 전망하는 구조적 변수로 설정하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리없이 통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446. 조용상,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한 통일전망”(국문), 사회과학논총 10,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2, pp.5~27.

Cho, Yong-Sang, “The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Perspective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10,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1991. 12, pp.5~2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맥을 이어온 정세의 흐름과 국제질서를 형성한 기본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질서의 성격과 그것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위의 국제체제에 미친 영향이나, 반대로 하위체제나 일정 국가에 의해 받은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한다. 또한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대결의 길을 걸어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체제나 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앞으로 예견되는 국제질서의 형태와 영향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성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도 모색한다.

2447. 曹廷煥, 李重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에 따른 재무보고”(국문), 경상논집 19-4,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1. 12, pp.17~25.

Cho, Jeong-Hwan, and Joong-Hee Lee, “Financial Reporting of Municipal Government due to Its Accountability”(in Korean),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19-4, Economics and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91.12, pp.17~25.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이유를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회계책임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이 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책임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모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 법률에 나타난 회계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448. 崔完圭, “전환기 한국 정치발전의 과제”(국문), 사회과학연구 4,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5, pp.165~182.

Choi, Wan-Kyu,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Transition”(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92. 5, pp.165~182.

전환기의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국 정치발전의 과제를 ‘민주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정치발전의 개념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기의 변화추세에 적합한 정치발전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2449. 한영구, “새로운 남북한관계 정립가능성 고찰: 유엔 가입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국문), 현대사회 40, 현대사회연구소, 1992. 5, pp.143~159.

Han, Young-Goo, “The Future of Making New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in Korean), *Contemporary Society* 40, Institute for Contemporary Society Research, Seongnam, Korea, 1992. 5, pp.143~159.

남북한의 유엔가입,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실현된 배경과 그 의미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한 관계의 정립가능성을 전망한다. 금후의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호의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이 커졌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국가연합과 연방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남북한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여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도시 및 지역개발

2450. 고태경, “국제체계에서의 한국과 신국제 노동분업과 관련된 도시발전”(국문 및 영문요약), 국토계획 27-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 5, pp.75~91.

Koh, Tae-Kyung,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Urban Development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27-2, Korea Planner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75~91.

국가체계와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이론을 살펴본 후, 국제도시의 발전 및 제3세계 대도시의 발전과정, 그리고 한국의 국제체계에서의 위치와 정치 경제정책과 연관된 도시발전과 도시의 구조적 문

제에 관해 논한다. 국제체계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발전 관계를 파악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2451. 권오혁, 윤완섭, “서울시 아파트의 공간적 확산과 주거지 분화”(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29,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94~132.

Kwon, Oh-Hyeok, and Wan-Seop Yoon, “Th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of Apartment Areas in Seoul”(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29,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Council, Seoul, Korea, 1991. 12, pp.94~132.

주거지 분화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아파트 건설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주거지 분화현상을 설명한다. 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주거지 분화과정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아파트 평형별 입지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아파트 지역의 성장패턴의 특성과 주거지 분화와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 주거지 분화는 한두 가지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거지 분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적 검증작업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2452. 권용우,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형성배경”(국문 및 영문요약), 응용지리 14, 성심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1991. 12, pp.35~59.

Kwon, Yong-Woo, “Underlying Factors Influencing Housing Problem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

mary), *The Journal of Applied Geography* 14, Korean Institute of Geographical Research, Sungshim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35~59.

한국의 주택문제의 형성배경을 인구와 산업활동의 집중화,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 가구단위의 인구이동, 도시개발정책의 변화, 도시권의 교외화 현상 등을 통해 고찰한다.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 의한 거대도시화 양상과 위성도시의 발달, 대도시권화 현상등이 주택문제의 주된 요인이며, 주택문제로 인한 가구단위의 인구이동과 1976년을 기점으로 한 정부의 도시개발정책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453. 金榮亮, “관광지화가 주변 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 장흥, 대성리, 용평 관광지의 사례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리학논총 1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1. 8, pp.41~63.

Kim, Young-Yang, “Impacts of Tourist Resorts on the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 Case Study of Janghung, Daesungri and Yongpyong Tourist Resor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eography* 18,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8, pp.41~63.

농촌지역의 관광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관광지의 특성과 관련시켜 비교한다. 선정된 사례는 장흥 국민관광지, 대성리 국민관광지, 용평리조트이고, 해당지역에 관한 2차자료 주민 및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

석하고 아울러 현지조사도 행한다. 각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광지의 특성과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의 차이가 관광지 주변 농촌지역에 작용되는 양상을 밝히고, 지역변화에 대한 관광지 주민의 평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와 함께 관광지의 특성,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의식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농촌지역에서 관광개발이 유발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2454. 金永玟, “전북 도시지역의 불균등 성장 연구, 1965~1985: 전체 한국 도시지역과의 비교분석”,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81~117.

Kim, Young-Jeong, “Urban Undergrowth in Chonbuk Province, 1965~1985: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Urban Disparities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81~117.

도시간 불균등 성장의 실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측정하면서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저발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로 불리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동안 전북의 모든 도시는 도시성장의 모든 차원에서 절대적인 침체를 거듭해 왔다. 이것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도시개발이 수도권 및 영남의 공업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2455. 金元京, “사업 서비스와 제조업의 연계: 부산과 마산의 사례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리학논총 1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1. 8, pp. 65~85.

Kim, Won-Kyong, “Linkages between Business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dustry: A Case Study of Pusan and Masa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eography* 18,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8, pp. 65~85.

사업 서비스 연계에 제조업의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전국 수준에서 우리나라 사업 서비스의 경제적 지위 입지변화 고용의 변화 등을 살피고,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과 마산의 사업 서비스와 제조업체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업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긴밀한 연관을 보여주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서비스를 개발해야함을 보인다.

2456. 朴貞姬, “도시주거계층 분석모델의 탐색”(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57~72.

Park, Jeong-Hee, “Exploring an Analytic Model of Urban Housing Strata”(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57~72.

An analytic model of urban housing strata based on Morris's and Winter's Housing Adjustment Model is examined to investigate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behavior of urban families. Family-related variables as well as physical conditions of housing a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through the concept of housing norm which is expected to vary with family characteristics. Housing strata are grouped by collapsing housing strata scores into four categories: upper, upper middle, lower middle, and lower strata. Housing strata are highly correlated with respon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attributes such as husband's and wife's education and family income, but not highly associated with family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using stratum is more useful than other status variables in explaining housing behavior.

2457. 李成福, “수도권정책에 관한 평가와 방향”(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행정학보 25-4, 한국행정학회, 1992. 2, pp. 305~327.

Lee, Sung-Bok, “An Evaluation and Implication of Development Policy for Seoul Metropolitan A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4,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2. 2, pp. 305~327.

산업화 및 도시화의 초기에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수위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전개되는 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위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전개되었으며, 인구 및 산업시설

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주변지역까지 도시 권역이 확대되었다. 인구 및 산업시설의 수도권광역권으로의 집중화는 서울과 주변 지역간에 발전격차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입안 집행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역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권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2458. 李洋宰,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성장동인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국토계획 27-2,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2. 5, pp. 25~54.

Lee, Yang-Jae, “A Study on the Growth Mechanism and its Change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27-2, Korea Planners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 25~54.

한국의 국가 정주계획에서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성장동인을 문헌조사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고찰한다. 우선 도시의 성장동인에 대한 일반적 이론의 고찰과 함께 중소도시의 성장동인을 밝힐 수 있는 분석지표를 탐색한다. 이러한 기반위에 각 연구대상 연도의 전체 중소도시를 성장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지표를 통해 각 유형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동인 및 그 변화를 살핀다. 이와 아울러 한국 중소도시의 개발전략 수립의 기본방향도 제시한다.

2459. 이은영, 김익기, 박진도, 허석렬, “도시 서민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29,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 36~93.

Lee, Eun-Young, Ik-Ki Kim, Jin-Doh Park, and Seok-Ryeol Heo, “A Study on the Residential Conditions of Korean Urban People”(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29,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Council, Seoul, Korea, 1991. 12, pp.36~93.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주거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도시 서민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실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그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의 주택공급정책과 각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현재의 임대차법에 관한 분석도 행한다. 아울러 서울과 청주의 주거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도시 서민들이 부딪치는 주거문제와 그들의 주거의식을 파악한다.

2460. 李正煥, “농어촌 구조개선과 지역 종합개발”(국문), 농촌경제 15-1, 농촌경제연구원, 1992. 3, pp.1~19.

Lee, Jung-Hwan, “Rural Structural Improvement and Regionally Integrated Development”(in Korean), *The Journal of Rural Economy* 15-1, Institute for Korean Rural Economy, Seoul, Korea, 1992. 3, pp.1~19.

농어촌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어촌 구조의 개선방안과 개발과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농어촌 개발정책을 평가한다. 농어촌 개발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정주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정주생활권을 대상으로한 지역계획과 영농권 단위의 마을 정비사업을 통해 능률적인 생산공간과 쾌적한 정주공간을 두루 갖춘 질서정연한 정주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461. 李鐘烈, “지역경제의 개발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 대구지역을 중심으로”(국문), 현대사회 40, 현대사회연구소, 1992. 5, pp.240~253.

Lee, Jong-Yeol,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aegu”(in Korean), *Contemporary Society* 40, Institute for Contemporary Society Research, Seongnam, Korea, 1992. 5, pp.240~253.

도시정부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경제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대구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 정부의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하며, 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과 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존 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신규 산업의 유치를 위해 조세유인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시정부 자체의 개발의지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정부는 독자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업체 내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2462. 이주재, “지역 불균등 발전과 농촌

의 빈곤”(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281~305.

Lee, Joo-Jae, “The Unequal Local Development and the Poverty of Rural Areas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281~305.

지역간 불평등 구조의 형성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의 피폐화 및 빈곤화 과정을 탐색한다. 농촌의 구조적 빈곤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간 불균등 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그 결과 초래된 농촌의 빈곤정도를 밝히고 있다. 또 농민들의 탈농, 농촌 노동력 구조의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 생활환경의 문제 등을 고찰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촌의 빈곤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463. 張在俊, “도시 노점상의 계급성에 관한 일 연구”(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29,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133~188.

Chang, Jae-Joon, “A Study on the Class Formation of the Urban Street Stall”(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29,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Council, Seoul, Korea, 1991. 12, pp.133~188.

한국사회의 계급모델, 도시 노점상의 계급적 성격형성의 도시사회학적 조건 및 도시 노점상의 노동조건, 경제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경력, 의식, 조직화와 운동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도시 노점상의 독자적 계급형성 여부, 도시 노점상의 계급형성이 도시빈민에게 주는 의미, 빈민으로서의 도시 노점상과 공장 노동자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점상은 자신들의 독특한 노동조건 속에서 계급적 성

격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또한 계급의식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64. 曹壽鐘, “충북지역 경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국문), 사회과학연구 8-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3~72.

Cho, Soo-Jong, “Contemporary Economic Conditions and their Future in Chungbuk”(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8-2,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oo, Korea, 1991, pp.3~72.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개발방식이 가져다 준 직 간접의 지역 저개발 문제를 해소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의 상향식개발 대안을 모색한다. 충북지역의 경제개발 가능요인으로 지리적 요충지,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농촌의 잠재 인력, 밀집된 고등교육기관 등을 들며 지방화 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중 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465. 최영출, “지역발전도 측정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과학연구 8-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pp.207~243.

Choi, Young-Chool, “The Measurement of Regional Development Indicators”(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8-2,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oo, Korea, 1991, pp.207~243.

지역발전도와 관계되는 37개의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정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시도한다. 충북지역의 13개 시 군에 대

한 상대적인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지역 개발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 결정, 자원배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8. 근대화와 사회변동

2466. 金斗植, 韓成德, 金南宣, “탄광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개발방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태백시를 중심으로”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119~154.

Kim, Doo-Sik, Seung-Duck Han, and Nam-Suhn Kim, “An Empirical Study on Structural Change of Coal-Mine Community: The Case of Taebak City” (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 119~154.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전체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석탄 생산지역에서의 태백지역에서 재생산되어 나타나는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전체 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성원들을 연결하는 거시적 관계의 미시적 연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관련하여 태백지역은 인구의 이동이 심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들이 열악하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소속집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전체사회와 동일한 사회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거시적 관계의 미시적 연관과 관련된 재생산과정에서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분석을 통해 태백시와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467. 김왕배, “한국사회의 자본축적과 공업지역의 종속적 재생산 구조: 계급의 공간분화와 관련하여” (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29,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202~240.

Kim, Wang-Bae, “Capital Accumulation and Dependent Reproduction Structure of Industrial Regions in Korea”(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29,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Council, Seoul, Korea, 1991. 12, pp.202~240.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지역문제들, 특히 지역 불균등발전의 문제를 계급의 공간적 분화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 발전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자본축적 과정과 함께 발생하는 지역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본축적에 따른 노동의 공간분업과 계급, 공업지역의 종속적 재생산 과정을 연관시켜 고찰한다. 공업지역의 재생산 구조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계급간의 통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468. 金鍾一,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형성과 공장체제의 변화: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여름, pp. 71~91.

Kim, Jong-Il, “The Form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ing Factory Regime in Korea Since 1987”(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91, pp.71-91.

1987년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형성에 관한 설명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복지 국가이론의 틀보다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뷰러워이(Burawoy)의 이론을 이용해서 한국 사회복지 형성의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7년 이후의 급속한 사회복지 형성은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자본의 축적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위기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해 온 '강제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 공장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위기의 배후에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세력의 성장, 정치적 민주화, 국제분업의 구조 개편 등의 요인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롭고도 안정된 자본의 축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창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의 사회복지 형성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아직 구호의 성격이 강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는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게모니 체제라 부르기에는 이른 듯하지만, 독점대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그 변화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형성은 앞으로 국가 자본 노동 3자간의 계급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469. 金炯基, "1987년 이후 독점대기업 노동자들의 의식변화와 그 함축: 13개 대기업노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경제와 사회* 13, 한국산업사회연구소, 1992 봄, pp.139~178.

Kim, Hyeong-Ki,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Large Company Workers and its Implications"(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3,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Spring 1992, pp.139-178.

1991년 2~3월에 독점대기업의 노조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1987년 이후의 노동자들의 의식변화를 분석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추적한다. 노자관계에 대한 의식을 기업수준의 노자관계에 대한 의식과 노조운동 노선에 대한 의식이란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치적 성향은 정당지지, 경제개혁의 방향, 한미관계와 현존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해명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는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 노선 재검토와 이념노선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2470. 문용직,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국문), 한국과 국제정치 8-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5, pp.1~18.

Moon, Yong-Jik, "Political Parties and Regionalism in Korea"(in Korean), *Korea and World Politics* 8-1,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eoul, Korea, 1992. 5, pp.1-18.

정당을 둘러싼 정치과정이 지역감정을 반영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주의를 규정해나가고 있다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지역간 대립을 뚜렷이 하기 전에 이미 야당은 지역간 대립을 첨예화 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은 급진적인 파벌경쟁이었다. 따라서 "지역간 균열이 먼저 존재하였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

당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정론적 오류를 갖기 쉽다.

2471. 宋虎根, “권위주의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하는가?” (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0,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118~140.

Song, Ho-Keun, “Trade Unions under Korean Authoritarianism”(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30,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2, pp.118~140.

현재의 한국이 권위주의 사회라는 전제하에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기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권위주의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노조의 조직력과 제도적 경험이 신장되면 노동조합이 노동자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2472. 慎侑根, “한국기업의 경영시스템과 노사관계의 변화” (국문), 노사관계연구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1991. 12, pp.61~102.

Shin, Yoo-Keun, “The Change of Korean Management Systems and Industrial Relations”(i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 The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61~102.

한국기업의 노사관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사관계 시스템과 여타 경영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살펴본다. 노사관계가 지향해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서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기업문화의

변화방향으로서는 ‘우리’ - ‘나’ 형 (We-I type) 기업문화를 제시한다. 경영체제의 변화방향은 전문경영체제를, 경영전략의 변화방향은 실리지향적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2473. 溫萬金, “근대화, 사회적 격차, 그리고 정치 통합” (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연구 2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92. 7, pp.1~22.

Ohn, Mahn-Geum, “Modernization, Social Cleavage, and Political Integration”(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7, pp.1~2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tegration and social cleavage structure. It reviews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n suggests a modified explanation of social cleavage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finds that regionalized social cleavage is responsible for such historical events as internal wars and separations, which are an extreme form of political disintegration. By applying the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design to longitudinal data, it also finds that the major factors of political disintegration are regionalized cleavage, minority rule, and political discrimination. In addition, economic growth clearly interacts with the regional patterns of social cleavage.

This paper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Studies of political integration should explicitly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atterns of social cleavage. Regionalized cleavage not only affects integration directly, but it also interacts with other factors.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not assume that many factors mentioned in literature would have an additive effect.

2474. 윤근섭, 金泳起, “농민층 분해 및 노동시장의 계층구조에 관한 연구: 전북 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 61~105.

Yoon, Keun-Seop, and Young-Ki Kim, “A Study on the Decomposition of Peasantry and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Labor Market in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61~105.

산업간·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전북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한국사회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연관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전북지역의 농민층 분해, 농민층의 사회이동, 산업구조 및 노동력의 계층구조 등의 제반 측면을 표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전북지역의 저발전 현상을 설명한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율성(community autonomy)의 확립이 절실하다.

2475. 李相哲, “지역노동운동의 비교연구:

1987~1990년 포항·울산·마산·창원 지역의 사례”(국문), 경제와 사회 12,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1 겨울, pp. 261~287.

Lee, Sang-Choel,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Labor Movement, 1987~1990: A Comparative Analysis of Pohang, Ulsan, and Masan-Changwon”(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2,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261~287.

지역 노동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노동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인과 그 함의를 탐구한다. 87년 이래 전국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별로 형성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성격을 유형적으로 파악하고, 유형형성에 미치는 구조적·상황적 요인들과 그들간의 관계 및 인과기제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과 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을 전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476. 李相哲,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특성, 1987~1990”(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0,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141~200.

Lee, Sang-Cheol,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ovement in Ulsan, 1987~1990”(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30,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2, pp. 141~200.

1987~1990년에 걸친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을 노사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울산은 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울산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동시에 한국 독점자본의 전형적인 노동통제 방식을 보여주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 노동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전투성과 폭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전체를 두고 볼 때 지역과 업종간에 운동의 활성화 정도와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지역 연대의 틀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역개관, 자본의 노동통제 양상, 노동자의 존재양태,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개 등의 순서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2477. 李廷雨,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국문 및 국문요약), *경제논집* 30-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9, pp.327~364.

Lee, Joung-Woo, “Wealth, Capital Gain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Economic Journal* 30-3,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9, pp.327~364.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온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와 감각의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 가지 자산-토지, 주식, 분양아파트-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의 규모가 1980년대 말에 오면서 유례없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과,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불평

등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불로소득의 비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분배적 정의에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2478. 丁怡煥,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 연구: 기업 규모간 분절화를 중심으로” (국문),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0,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12, pp.82~117.

Jeong, Yee-Hwan, “The Structural Changes in Labor Marke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30, Korean Social History Research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12, pp.82~117.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① 한국의 내부 노동시장의 발전과 규모간분절화 여부와 ② 1960년대 일본 노동시장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적 특징을 논의한다. 정부의 통계자료중 『매월 노동통계조사』와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의 분절과 내부 노동시장의 발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479. 조영건, “한국 재벌경제의 실태와 과제” (국문), *사회과학연구* 4,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5, pp.107~129.

Cho, Young-Keon, “The Conditions and Issues of Korean Jaebol Economies”(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92. 5, pp.107~129.

한국 재벌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과정을 추적하면서 대표적 재벌의 성장사례를 개관한다. 아울러 재벌의 한국경제 지배 실체를 해부하여 한국 재벌경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덧붙이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으로서의 재벌규제정책을 정리하고, 민간수준에서 재벌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제시한다.

2480. 曺 恩, 姜禎求, 申光榮,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27~52.

Cho, Uhn, Jeong-Koo Kang, and Kwang-Yeong Shin, “Class Structure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27~52.

라이트(E. O. Wright)의 착취중심적 계급개념에 기초하여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사회 계급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상품 생산양식의 공존으로 인한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3차 산업의 과잉성장’으로 인하여 노동계급과 뼈띠부르조아의 내적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프로레타리아와 뼈띠부르조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성 분절적 계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배집단의 핵심인 자본가 계급의 경우 경상지역 출신이 과반수를 넘어 계급구조는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481. 韓道鉉, “현대 한국에서의 자본의 토지 지배구조”(국문), 경제와 사회 13,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2 봄, pp.307~326.

Han, Do-Hyeon, “The Domination of Capital over Land in Contemporary Korea”(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3,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Spring 1992, pp.307~326.

현대 한국에서의 자본의 토지 지배를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과 경기도 10여 개 마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해명한다. 자본가 계급의 토지 지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토지 구조를 밝히고, 자본가 계급과 토지소유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토지 문제 연구에서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를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농지문제도 자본의 토지 지배라는 틀에서 고찰한다.

## 9. 복지

2482. 金正夫,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국문), 사회과학연구 4,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5, pp.131~163.

Kim, Jeong-Boo, “Korean Social Welfare Issues and their Future”(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92. 5, pp.131~163.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을 아동·노인·장애자 복지정책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

The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2. 6, pp.301~330.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문제로서 각출료율의 인상 압박과 사회적 적절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이에 대한 5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 각각의 대안을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국민연금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낮은 각출료율에 기초한 수지균형 재정안을 최적의 수정대안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2489. 鄭明采, “농어민 연금제도 수립 방안”(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107~129.

Jung, Myoung-Chae, “On the Establishment of Peasants’ Pension System”(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107~129.

현재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상·공업 중심의 산업화정책과 해외의존적 무역경제질서로의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이농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한국농업의 피폐화라는 현상을 대변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농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업경영이양을 조건으로 하는 농어민 연금제도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다. 농어민연금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영이양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생산요소로서의 인식전환과 투기에 대한 규제, 경제정

의 실현 등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2490. 鄭明采,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193~233.

Jung, Myoung-Cha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Rural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193~233.

농촌 빈곤의 사회적·경제적 제 원인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특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회 빈곤의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특히 농업·경제 사회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논의하기 위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농업정책이나 사회제도가 구조적인 빈곤을 유발하거나 온존시키게 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491. 丁衡德, “도시빈곤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국문), 지방행정연구 7-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2, pp.59~76.

Jung, Hyung-Duk, “Urban Poverty Policy and its Problems”(in Korea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7-1, Korea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e, Seoul, Korea, 1992. 2, pp.59~76.

한국 생활보호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사회부조제도로써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① 현행 생활보호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부조의 종류를 재조정 할 것, ②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Korea, 1992. 5, pp.107~129.

한국 재벌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과정을 추적하면서 대표적 재벌의 성장사례를 개관한다. 아울러 재벌의 한국경제 지배 실체를 해부하여 한국 재벌경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덧붙이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으로서의 재벌규제정책을 정리하고, 민간수준에서 재벌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제시한다.

2480. 曹 恩, 姜禎求, 申光榮,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국문 및 국문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25, 한국사회학회, 1991 겨울, pp.27~52.

Cho, Uhn, Jeong-Koo Kang, and Kwang-Yeong Shin, “Class Structure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91, pp.27~52.

라이트(E. O. Wright)의 착취중심적 계급개념에 기초하여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사회 계급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상품 생산양식의 공존으로 인한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3차 산업의 과잉성장’으로 인하여 노동계급과 뿌띠부르조아의 내적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프로레타리아와 뿌띠부르조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성 분절적 계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배집단의 핵심인 자본가 계급의 경우 경상지역 출신이 과반수를 넘어 계급구조는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481. 韓道鉉, “현대 한국에서의 자본의 토지지배구조”(국문), 경제와 사회 13,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2 봄, pp.307~326.

Han, Do-Hyeon, “The Domination of Capital over Land in Contemporary Korea”(in Korean), *Economy and Society* 13, Korea Industrial Society Studies Association, Seoul, Korea, Spring 1992, pp.307~326.

현대 한국에서의 자본의 토지지배를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과 경기도 10여 개 마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해명한다. 자본가 계급의 토지지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토지구조를 밝히고, 자본가 계급과 토지소유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토지문제 연구에서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를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농지문제도 자본의 토지지배라는 틀에서 고찰한다.

## 9. 복지

2482. 金正夫,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발전방향”(국문), 사회과학연구 4,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5, pp.131~163.

Kim, Jeong-Boo, “Korean Social Welfare Issues and their Future”(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92. 5, pp.131~163.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을 아동·노인·장애자 복지정책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

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의 정립, 사회복지정책이념의 정립, 정책과학적 접근방법의 도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483. 南明熙, 柳香基, “소득분포와 빈곤에 관한 일고찰”(국문), 사회과학논총 3,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2, pp. 253~268.

Nam, Myung-Hee, and Hyung-Kie Leu, “Redefining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in Korean), *Social Science Riview* 3,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1991. 12, pp.253~268.

빈곤의 실태에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나 이와 유사한 절대적 기준을 세워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하여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빈곤은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빈곤선에 관한 연구는 1973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연구자나 연구단체에 따라 빈곤선을 해석하는 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빈곤에 대한 정책도 단지 현상유지적인 형식성에만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84. 文玉綸, “의료보험이 국민보건과 의료체계에 미친 영향”(국문), 보건학논집 4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6, pp. 11~33.

Moon, Ok-Ryun, “The Impact of

Health Insurance on the Nation's Health and Health System”(in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44,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1. 6, pp.11~33.

의료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의 실시가 보건의료체제와 국민보건에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자원을 조직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을 통해 의료체계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명실상부한 재원조달 수단이 되어 지역간 의료충족율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지표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책의 일부 수정 및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2485. 윤영숙, “가족상담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여성연구 10-1, 한국여성개발원, 1992 봄, pp. 39~73.

Yoon, Young-Sook, “A Study on Activation for Family Counseling Service Program”(in Korean), *The Women's Study* 1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pring 1992, pp.39~73.

가족문제는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및 역할,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여건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 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문제는 그가 속한 가족전체의 문제이며 많은 경우 문제가 있는 가족체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변화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 서비스의 보편화와, 동시에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가족상담 제공기관의 접근도를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486. 이인복, 이선재, 김영란, “한국의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아세아여성연구* 30,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1. 12, pp.7~87.

Lee, In-Bok, Sun-Jae Lee, and Young-Lan Kim, “A Study of Welfare-Measures for Alienated Women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Asian Women* 30,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1. 12, pp.7~87.

90년대에는 한국사회가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성복지정책의 시작단계로서 소외여성의 복지 문제를 사회정책으로 정립시키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복지의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정부가 복지국가의 이념하에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487. 이희선, “한국 복지정책과 기본적인 욕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1962~1987”(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행정학보* 25-4, 한국행정학회, 1992. 2, pp.159~179.

Lee, Hee-Sun,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and Basic Human Needs

in Korea: A Time Series Analysi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4,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92. 2, pp.159~179.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책수행이 경제적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과거 1962~1987년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한국적인 맥락에 적실성있는 통합된 증거들을 기초로, 종속변수들인 복지정책 수행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인 정치적 속성변수들 그리고 경제적 변수들을 설정하여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구체화한다. 그 중 정치적 속성변수들인 엘리트이론과 정치적 민주화 및 사회계급갈등에 대한 이론 등은 종속화 관점에서, 경제적 변수들인 산업화와 복지국가이론 등은 근대화 관점에서 몇가지 경쟁가설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였다. 자료는 국내외에서 출간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대체적으로 경제적 변수들이 정치적 속성변수들보다 한국 복지정책 및 기본적인 욕구충족 변수들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이 나타났다.

2488. 이희선, “한국 국민연금정책의 미래 재정 계획안에 관한 쟁점”(국문 및 영문요약), *행정문제논집* 11,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92. 6, pp.301~330.

Lee, Hee-Sun, “National Welfare Pension Policy in Korea: An Issue of Future Financing Schem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Analysis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11,

The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2. 6, pp.301~330.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문제로서 각출료율의 인상 압박과 사회적 적절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이에 대한 5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 각각의 대안을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국민연금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낮은 각출료율에 기초한 수지균형 재정안을 최적의 수정대안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2489. 鄭明采, “농어민 연금제도 수립 방안” (국문), 농촌사회 1,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4, pp.107~129.

Jung, Myoung-Chae, “On the Establishment of Peasants’ Pension System” (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1. 4, pp.107~129.

현재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상·공업 중심의 산업화정책과 해외의존적 무역경제질서로의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이농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한국농업의 피폐화라는 현상을 대변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농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업경영이양을 조건으로 하는 농어민 연금제도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다. 농어민연금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영이양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생산요소로서의 인식전환과 투기에 대한 규제, 경제정

의 실현 등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2490. 鄭明采,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193~233.

Jung, Myoung-Cha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Rural Korea”(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1,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193~233.

농촌 빈곤의 사회적·경제적 제 원인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특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회 빈곤의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특히 농업·경제 사회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논의하기 위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농업정책이나 사회제도가 구조적인 빈곤을 유발하거나 온존시키게 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491. 丁衡德, “도시빈곤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국문), 지방행정연구 7-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2, pp.59~76.

Jung, Hyung-Duk, “Urban Poverty Policy and its Problems”(in Korea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7-1, Korea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e, Seoul, Korea, 1992. 2, pp.59~76.

한국 생활보호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제도로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① 현행 생활보호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부조의 종류를 재조정 할 것, ②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③ 보호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2492. 曹興植, “한국농촌의 복지문제: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국문), 농촌사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5, pp. 259~279.

Cho, Heung-Shik, “The Welfare Issues of Korean Rural Communities”(in Korean), *Korea Journal of Rural Sociology* 2,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92. 5, pp. 259~279.

한국 농민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2493. 최숙희, “여성의 취업구조와 국민연금제도”(국문), 여성연구 10-1, 한국여성개발원, 1992 봄, pp. 75~100.

Choi, Sook-Hee, “Relation between Female Employment Structure and National Pension System”(in Korean), *The Women's Study* 1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Spring 1992, pp. 75~100.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그러한 취업구조 속에서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찰한다. 우리보다 사회보

장제도가 앞서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한국 여성들이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취업의 기회와 취업기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안에서는 그 혜택이 미약하며,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이혼여성은 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취업구조의 틀에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494. 최 현, 이용교, 이명목, 전병운,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국문), 한국청소년연구 2-1,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pp. 86~105.

Choe, Hyun, Yong-Gyou Lee, Myong-Mook Lee, and Byong-Woon J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ing Services for the Youth Being Required Extra Attention”(in Korean), *The Korea Journal of Youth and Children* 2-1, Korea Institute for Youth and Children, Seoul, Korea, 1991, pp. 86~105.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에 부응하며 국가와 사회의 자원 제 공능력에 맞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 배경, 기존의 복지정책, 그들의 생활상태와 욕구 등을 분석하고, 그들을 위한 호